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미중 관세 휴전 연장에도, CPI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1일(월)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발표, 마이크론(+4.1%) 실적 기대감에도, 7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장중 확대된 여파로 하락 마감(다우 -0.5%, S&P500 -0.3%, 나스닥 -0.3%).

이제 시장은 오늘 밤 예정된 미국의 7월 CPI 결과를 확인한 후 인플레이션 경로 및 연준의 금리 경로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 7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컨센서스를 재차 확인해보면, 각각 2.8%(YoY, 6월 2.7%), 3.0%(YoY, 6월 2.9%)로 집계되는 등 물가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진 상태. 이번 CPI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는 대목. 실제로 7월 CPI의 컨센 하회 시 “관세 리스크 완화 → 인플레이션 안도감 →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 증시 급등”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소지가 있음.

그렇지만 7월 데이터들은 보편관세 10%만 반영된 것이며, 8월 데이터부터는 상호관세가 반영된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예일대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실효관세율은 연초 2.5%에서 8월 이후 18.3%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감당해왔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일례로, 최근 WP 등 외신에 의하면, 코스트코, 타깃, P&G 등 주요 미국 유통업체들이 관세부담을 상쇄하고자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기에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눈높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 인플레이션 예측력이 높은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모델 상 9월 중 발표되는 8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각각 2.86%, 3.0%로 7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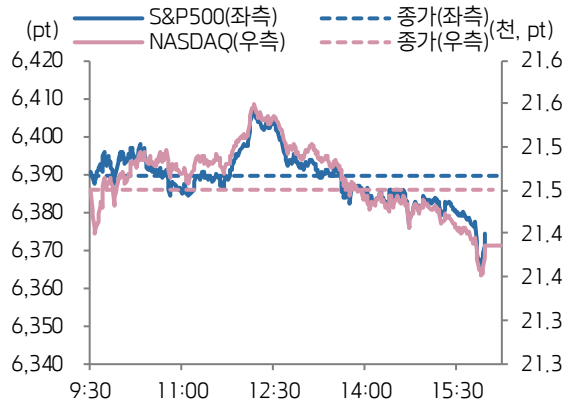
이번 7월 CPI가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인 것은 맞지만, 8월까지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시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YoY, MoM 기준으로 컨센을 +0.1%p를 초과하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한, 일간 변동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 방향성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과세 불확실성, 미 CPI 경계심리 속 CATL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이차전지주 강세 vs 실적 쇼크로 인한 화장품 약세 등 업종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3%).

금일에도 대주주양도소득세 요건 변화 등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미국 CPI 경계심리 등에 영향을 받으며 장중 지수 상단이 제한적으로 열리는 눈치보기 장세가 나타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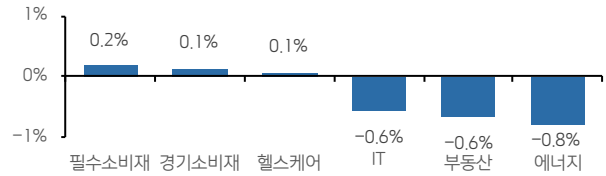
업종 측면에서는 아직 반도체 개별 관세 품목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으나, 이들 주가 및 수급 향방에 주목할 필요. AI 수요 발 HBM 판매 증가, DRAM 가격 상승 등으로 4분기 매출 가이드스 상향(104억~110억 → 111억~113억)한 미국 마이크론이 4%대 급등세를 연출했기 때문. 이 같은 마이크론발 호재가 금일 국내 반도체주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예상.

## S&amp;P500 &amp;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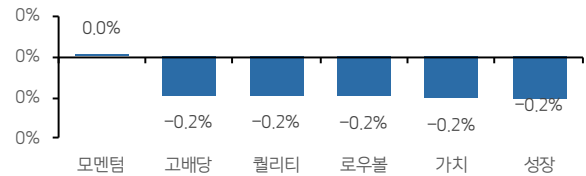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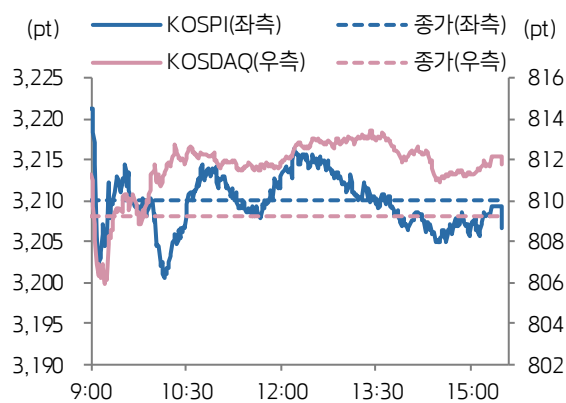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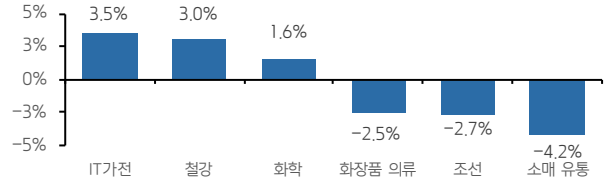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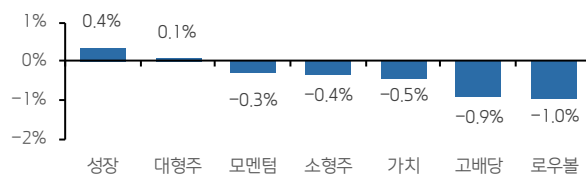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7.18	-0.83%	-8.96%	GM	54.01	+0.9%	+1.97%
마이크로소프트	521.77	-0.05%	+24.26%	일라이릴리	635.22	+1.53%	-17.41%
알파벳	201.00	-0.21%	+6.43%	월마트	103.93	+0.19%	+15.63%
메타	765.87	-0.45%	+31.02%	JP모건	289.56	+0.28%	+22.76%
아마존	221.30	-0.62%	+0.87%	엑손모빌	105.83	-0.91%	+0.18%
테슬라	339.03	+2.85%	-16.05%	세브론	153.45	-1.01%	+8.42%
엔비디아	182.06	-0.35%	+35.59%	제너럴일렉트릭	103.93	+0.2%	+15.6%
브로드컴	303.90	-0.35%	+31.79%	캐터필러	408.54	-1.92%	+13.99%
AMD	172.28	-0.28%	+42.63%	보잉	225.96	-1.38%	+27.66%
마이크론	123.72	+4.06%	+47.34%	넥스트에라	72.45	+0.1%	+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206.77	-0.1%	+33.64%	USD/KRW	1,390.50	+0.22%	-5.56%
코스피200	433.29	-0.04%	+36.33%	달러 지수	98.49	+0.31%	-9.22%
코스닥	811.85	+0.32%	+19.71%	EUR/USD	1.16	-0.22%	+12.18%
코스닥150	1,365.20	+0.71%	+20.84%	USD/CNH	7.20	+0.1%	-1.93%
S&P500	6,373.45	-0.25%	+8.36%	USD/JPY	148.15	+0.28%	-5.76%
NASDAQ	21,385.40	-0.3%	+10.74%	채권시장			
다우	43,975.09	-0.45%	+3.36%	가격	DTD(bp)	YTD(bp)	
VIX	16.25	+7.26%	-6.34%	국고채 3년	2.420	+1.3bp	-17.5bp
러셀2000	2,216.51	-0.09%	-0.61%	국고채 10년	2.785	+1.3bp	-8.6bp
필라. 반도체	5,670.37	-0.13%	+13.86%	미국 국채 2년	3.768	+0.6bp	-47.3bp
다우 운송	15,183.03	-1.03%	-4.48%	미국 국채 10년	4.285	+0.2bp	-28.4bp
상해종합	3,647.55	+0.34%	+8.82%	미국 국채 30년	4.852	+0.3bp	+7.1bp
항셍 H	8,888.08	-0.08%	+21.92%	독일 국채 10년	2.696	+0.6bp	+32.9bp
인도 SENSEX	80,604.08	+0.93%	+3.15%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331.85	-0.3%	+8.9%	WTI	63.96	+0.13%	-7.51%
MSCI 전세계 지수	938.16	-0.25%	+11.51%	브렌트유	66.63	+0.06%	-10.73%
MSCI DM 지수	4,113.11	-0.3%	+10.93%	금	3,404.70	-2.48%	+23.05%
MSCI EM 지수	1,255.65	+0.15%	+16.75%	은	37.79	-1.96%	+29.22%
MSCI 한국 ETF	73.03	-0.64%	+43.51%	구리	444.00	-0.7%	+10.27%
디지털화폐				BDI	2,051.00	+2.14%	+105.72%
비트코인	118,856.36	+0.42%	+26.83%	옥수수	407.75	+0.55%	-8.11%
이더리움	4,245.64	+0.64%	+26.87%	밀	515.00	+0.1%	-11.36%
				대두	1,011.25	+2.41%	-1.37%
				커피	314.05	+3.84%	+8.5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1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